

《史記》의 春秋 시기 敍事 고찰

— 《左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安 芮 璿**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史記》의 춘추 시기 敍事와 《左傳》
 - (1) 《左傳》의 내용 수용
 - (2) 《左傳》 이외의 자료 채택
3. ‘成一家之言’을 위한 司馬遷의 《左傳》 재편
 - (1) 도덕적 인과관계 배제
 - (2) ‘隱忍就功名’의 강조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역사 기록의 주안점은 사실 자체가 아닌 의식의 전달이다. 즉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전쟁과 반란이 발발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군주가 시해되고, 전쟁과 반란이 발발한 원인과 그것을 해결해가는 전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인간 세상의 이치와 당위성을 전달하는 것이 역사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기존 자료를 선택, 배치, 윤색하여 역사를 논리와 인과관계를 갖춘 ‘敍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4825).

** 고려대 중문과 강사

事'로 재편해 낸다.¹⁾ 즉 敘事란 저자의 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원인→과정→결과로 엮어낸 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동일한 사건과 인물이라 하더라도 史家の 기획 의도에 따라 서사는 달라진다.

본고는 史家の 다른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상이한 서사로 나타나는지의 양상을 《史記》 중 춘추 부분과 《左傳》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기》는 편찬 과정에서 당시의 참고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다 활용했다. 사마천이 참고한 문헌 중 《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만도 약 백 여 종에 달한다.³⁾ 이렇게 방대한 자료 중 춘추 시대는 《좌전》을 가장 많이 채택하였다. 顧炎武는 “세가는 대부분 《좌씨전》에 근거하였다[凡世家多本之《左氏傳》]”⁴⁾, 梁啓超는 “열에 아홉은 《좌전》에서 온 것[原料十九採自《左傳》]”이라 하였고,⁵⁾ 范文瀾 또한 “《좌전》에서 태반을 취했다[春秋時事取《左傳》者泰半]”고 하였다.⁶⁾ 劉節도 “《사기》의 東周 시기 이후 기록은 《국어》, 《전국책》과 《좌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⁷⁾

司馬遷은 《좌전》을 그대로 옮겨 동일하게 기술하기도 했지만 축약하거나 과장하기도 하고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도 했고 추가하기도 했다. 《좌전》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그 해석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며, 《좌전》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

- 1) 본고에서의 '敘事'는 현대의 문학연구에서 다루는 서사학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 전통시기에 사용되었던 '서사'의 의미, 즉 사서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보편적 용어로 차용한다.
- 2) 이와 같은 전통시기 중국 '敘事'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고찰은 안예신, 〈중국 古文의 '敘事'론 연구-先秦兩漢 歷史散文의 '敘事'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59집, 2013년 10월) 참조.
- 3) 張大可 등 저, 《史記研究集成》제11권《史記文獻與編纂學研究》(華文出版社, 2005), 94쪽.
- 4) 《日知錄》권26, 《歷代名家評史記》, 180쪽 재인용.
- 5) 梁啓超, 《要籍解題及其讀法·史記》: “《世家》中吳, 齊, 魯, 管蔡, 陳杞, 衛, 宋, 晉, 楚, 越, 鄭各篇, 原料十九採自《左傳》.”
- 6) 范文瀾, 《正史考略》: “太史公作《史記》, 春秋時事取《左傳》者泰半, 謂《史記》之一部, 蛻化於《左傳》, 或無不可.”(呂俊, 《史記引用左傳研究》(鄭州大學 석사논문, 2012), 4쪽 재인용)
- 7) 《古史辨》第五冊〈序〉: “《史記》所載也不外《國語》、《國策》及《左傳》所記.”《歷代名家評史記》, 190쪽 재인용.

과 인물에 대해 어떤 상이한 서사가 펼쳐지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편찬자의 의도와 서사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史書의 비교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기》 중 漢代 이후 부분과 《좌전》을 비교하면서 두 사서의 문학적 성향이나 문장의 풍격, 즉 인물·상황·심리 묘사의 펴진함, 상세함, 곡진함, 적절한 상상과 창작의 운용, 포핍의 정신 등의 비교에 집중되어 왔다.⁸⁾ 본고는 기존의 이러한 문학적 내용과 수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마천이 자신의 의도를 위해 어떻게 《좌전》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편집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⁹⁾

《사기》는 시기에 따라 크게 漢 이전과 前漢 시기로 구분되는 通史이지만 단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漢代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¹⁰⁾ 그 다음으로 전국 시대가 많고, 춘추 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다. 《사기》 중

8) 현대 연구자들의 《史記》와 《左傳》 비교 연구로는 梁曉雲의 《史記與左傳比較研究》(北京師範大學 박사논문, 1997), 朱志純의 《從史記對左傳的取材透視司馬遷的一家之言》(華中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吳美卿의 《左傳的人文精神對史記創作的影響》(福建師範大學 석사논문, 2002), 廖穎의 《左傳與史記》(貴州大學 석사논문, 2008), 車穎의 《左傳·史記敘事藝術比較研究》(西北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 呂俊의 《史記引用左傳研究》(鄭州大學 석사논문, 2012), 鄭世林的 《論史記對左傳中人物形象的重塑》(重慶師範大學 석사논문, 2010)을 들 수 있다. 《左傳與史記》는 《좌전》과 《사기》중의 동일 대목에 대해 대조하였으나 분석은 없고 나열만 되어 있다. 《史記引用左傳研究》는 《사기》가 《좌전》의 내용을 刪, 改, 增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소논문으로는 張新科的 <史傳文學中人物形象的建立—從左傳到史記>(陝西師大學報, 1988년제1기), <從左傳到史記史傳文學的特徵>, 馬格俠의 <史記對左傳的繼承和發展>(天水師專學報, 1997년 1기), 舒大清, <論史記對左傳預敘的揚棄>(湖北師大學報, 2009년제1기) 등을 들 수 있다.

9)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한 선행 연구도 있다. 이들은 《좌전》과 《사기》의 같은 대목을 나열하여 글자와 표현을 어떻게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첨가했는지를 비교한 것들이다. 그러나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개별적 양상에 대한 열거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방법론에 있어 본고와 유사한 연구로는 王靖宇의 <歷史·小說·敘述—以晉公子重耳出亡爲例>(《中國早期敘事文研究》에 수록)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晉公子 重耳가 망명하는 과정을 다른 《左傳》, 《國語》, 《史記》의 내용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서사가 나오게 된 원인을 고찰하였다. 王靖宇는 이것이 저자의 역사 사실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개성 창조와 조리있는 서술을 위한 서로 다른 해석과 견해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 <從<伍子胥列傳>看《史記》再創作的特點>, <從伯嚭透視《史記》撰述先秦人物的特徵>, <史記與左傳、國語所記之吳越歷史的比較研究>, <兩個晉文公—從《左傳》與《史記》的人物差異說開> 등을 들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주로 伍子胥와 晉文公 두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

10) 《사기》 130편 중 완전히 漢代이거나 漢代를 중점적으로 기술한 것이 66편이며, 완전히 漢代 이전의 기술은 55편이다. 施丁, <司馬遷寫當代史>, 《歷史研究》, 1979년7期.

춘추 시대를 다룬 편은 <周本紀>와 <秦本紀>, 吳, 齊, 魯, 晉, 鄭, 衛, 宋, 楚, 趙의 세가 및 <越王勾踐世家>, <孔子世家>, <管晏列傳>, <伍子胥列傳>이다. 본고는 이들 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사 부분을 다루고자 함으로 《사기》 중 書와 表는 논외로 하며, 合傳인 <자객열전>, <화식열전> 등에 포함된 춘추 시기 인물도 논외로 한다.

2. 《史記》의 춘추 시기 敘事와 《左傳》

(1) 《左傳》의 수용

章學誠은 《사기》에 대해 “여러 기록을 취합하여 지어진 것으로 자신이 쓴 분량이 열에 하나라면 기존의 사료에서 취사선택한 것이 열에 아홉”이라고 했다.¹¹⁾ 기존의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찬술하는 것은 중국 서사의 전통이자 관습이다. “역사는 본디 삭제하여 서술하는 것을 능사로 한다(蓋史者本以刪述爲能事)”고 할 정도로 역사 집필은 ‘述而不作’의 태도가 필요한 영역이었다.¹²⁾ 때문에 사마천도 춘추 시대의 기술에서 대부분은 《좌전》을 따르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기》 중 《좌전》을 인용한 곳은 200조가 넘

11) 章學誠, 《文史通義校注·點陋》: 《사기》는 《상서》, 《국어》, 《세본》, 《전국책》, 《초한춘추》 등 여러 기록을 근거로 하였으며 자신이 쓴 분량이 열에 하나라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남긴 분량은 열에 아홉이다. 군자는 이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았다. 저들은 책을 짓는 뜻은 본래 편집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춘추》를 이어 일가의 주장을 이룬 사람은 이런 측면을 조심하고 두려워했으며 사실을 서술하고 다듬는 일은 그 다음일 뿐이다. 옛사람은 문사를 뽐내지도 않았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역사서의 글도 실속 없이 헛된 말을 근거로 따로 지을 수 없었다. (《史》因《尚書》、《國語》及《世本》、《國策》、《楚漢春秋》諸記載, 己所爲者十之一, 刪述所存十之九也. 君子不以爲非也. 彼著書之旨, 本以刪述爲能事, 所以繼《春秋》而成一家之言者, 於是兢兢焉, 事辭其次焉者也. 古人不以文辭相矜私, 史文又不可以憑虛而別構.)

12) 鄭鶴聲, 《史漢研究》, 98-99쪽. “蓋史者本以刪述爲能事, 古人不以文辭爲自私, 史文又不可以憑虛而別構, 故曰述而不作.” 鄭鶴聲의 언급은 章學誠을 인용한 것이다.

는다고 한다.¹³⁾ 《사기》 중 <周本紀>와 <秦本紀>의 상당 부분, 齊, 魯, 晉, 鄭, 衛, 宋 등 세가와 <楚世家>의 춘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좌전》의 내용을 선별하여 기술한 것이다.¹⁴⁾ 여기서는 《사기》가 《좌전》의 내용을 취하면서도 문장을 달리한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는 《좌전》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표현을 달리하였다.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대사에서 보인다. 《좌전》은 대사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들 대사는 한 편의 의론문으로 구성해도 될 만큼 체계적이고 논리가 정연하면서 유가적 도리를 설파하고 있어 말이 아닌 글의 느낌이다.¹⁵⁾ 《사기》는 《좌전》의 거의 모든 대사를 재구성 하면서 간결하면서 일반적인 사리에 근거한 대화체로 축소하였다. 예를 들어 衛莊公이 첩의 소생인 州吁를 총애하여 그가 병정놀이를 좋아하는데도 금하지 않자 대부 石碚가 간언하는 대목을 보자.

《좌전·은공3년》 : 저는 아들을 사랑한다면 바른 도리로서 가르쳐 사악한 길로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총애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낮은 지위를 편안해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천한 자가 귀한 자를 훼방하고, 어린 자가 어른을 능멸하고, 소원한 자가 가까운 사람을 이간하고, 새로 온 자가 옛 사람을 이간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소위 6역이라고 합니다. …… 순리를 버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따르면 화를 재촉하게 됩니다.(臣聞愛子, 教之以義方, 弗納於邪. ……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諺者, 鮮矣. 且夫賤妨貴, 少陵長, 遠間親, 新間舊, 小加大, 淫破義, 所謂六逆也; …… 去順效逆, 所以速禍也.)¹⁶⁾

13) 呂俊, 《史記引用左傳研究》(鄭州大學 석사논문, 2012), 2쪽. 구체적으로 《사기》가 《좌전》의 내용을 얼마나 채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통계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馬格俠의 <史記對左傳的繼承和發展> (天水師專學報, 1997년 1期)에서는 《사기》의 기사 중 《좌전》과 동일한 기술이 131곳이라고 했다.

14) 韓兆琦, 《史記通論》, 239쪽.

15) 여기서 말하는 인물의 대사란 일반 대화가 아닌 《좌전》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의론식 논설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화의 유형과 주요 논증 방식에 대해서는 戴振雯, <左傳人物言論的論述傾向> (黃山學院學報, 2007년 8월) 참조.

16) 본 논문에서의 《左傳》은 杜預 集解의 《春秋經傳集解》(上海古籍出版社, 1988)을, 《史記》는 中華書局본을 저본으로 한다. 인용문의 원문은 따로 쪽수를 표기하지 않고, 《사기》는 편명어로, 《좌전》은 노나라 임금과 연도로 표기한다.

石磻은 하극상의 여섯 가지 경우를 제시하며 서열상 아래인 州吁에 대한 총애는 결국 화를 부를 것이라 간언하였으나 그의 간언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주우는 난을 일으켰다. 《좌전》에서 이러한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원칙론이 정치, 윤리교과서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위세가》의 동일 단락에서는 이런 명분론이 모두 삭제되고 “군사 방면에 조예가 있다고 해서 서자에게 군대를 맡긴다면 장차 큰 화근이 될 것(庶子好兵, 將使, 亂自且起.)”이라는 말로 축약된다.

《좌전·희공24년》에 周 襄王이 狄人의 힘을 빌려 鄭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大夫 富辰이 불가함을 간언하는 대목은 《시경》까지 인용하면서 340여자에 달하는 장황한 논설이다.¹⁷⁾ 《詩》, 《書》, 《易》, 《禮》 등을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유가 경전에 담긴 가르침들이 역사의 경로를 규정한다는 입증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좌전》 문체의 특징이다.¹⁸⁾ 그러나 《사기·周本紀》의 동일 부분은 이러한 당위론과 명분론 없이 “우리 주왕실이 동천할 때 쯤과 鄭나라의 힘을 빌렸고, 왕자 頹가 난을 일으켰을 때도 鄭이 평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사소한 원한 때문에 鄭나라를 버리시다니요?(凡我周之東徙, 晉, 鄭焉依. 子頹之亂, 又鄭之由定, 今以小怨棄之!)”로 축약되어 있다. 경전과 원론을 나열하는 장황한 의론을 일반적 사리에 근거한 대화체로 변환시킨 것은 《좌전》과 《사기》의 동일 대목에서 보이는 일관된 현상이다. 이는 《사기》가 《좌전》의 방대한 내용을 축약해야 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되지 않는다. 《좌전》 중 짧은 편폭의 대사도 바꾸었기 때문이다. 쯤에 기근이 들어 秦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秦나라는 원조해 주었으나 이후 秦나라에 기근이 들어 곡식을 팔 것을 쯤에게 요청하자 쯤은 거절하려 했다. 그러자 慶鄭이 간언하는 대목을 보자.

《좌전·희공14년》 : 은혜를 저버리면 친한 사람이 없게 되고, 남의 재앙을 보

17) 원문이 길어 직접 인용은 생략한다.

18)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276-277쪽.

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아끼는 것을 욕심내면 상서롭지 못하고, 이웃을 노하게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네 가지 덕을 다 잃고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背施無親, 幸災不仁, 貪愛不祥, 怒鄰不義, 四德皆失, 何以守國?)

《사기·진세가》 : 진나라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한 약속도 어겼는데도 우리 진나라가 기근이 들자 그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팔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근이 들어 우리에게 식량 판매를 요청하는데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의문이 있어 상의하오리까. (以秦得立, 已而倍其地約. 晉饑而秦貸我, 今秦饑請糶, 與之何疑? 而謀之!)

《좌전》의 인물은 항상 유가적 덕목을 나열하고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慶鄭 또한 親, 仁, 祥, 義라는 네 가지 덕목을 나열하며 이를 어기고서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네 가지 덕을 잃고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냐”는 말에는 진나라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암시까지 내포되어 있다. 《좌전》에 의하면 慶鄭은 세 차례에 걸쳐 간언하였으나 진혜공은 모두 듣지 않았다. 慶鄭이 물러나면서 “군주는 이 일을 후회할 것이다(君其悔是哉)”라고 한 말은 전쟁의 참패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기》에서 경정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진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진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리로 설득하며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 가치나 이 사태가 불러올 후환에 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좌전》에서 대사는 도덕적 원칙론을 반복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자체가 설교적 역할을 하는데, 사마천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거나 상식적 사리에 근거한 말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여기서 史書의 대사가 史家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경정이 진혜공에게 간언했다’는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사가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대사로 엮어내는 것이다.

사마천은 《좌전》의 사실을 수용하면서도 약간의 윤색을 가하기도 했다. 제환공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보자.

《좌전·회공 17년》 : 겨울 10월 을해일, 제환공이 세상을 떠났다. 易牙가 궁에 들어와 寺人 貂와 함께 총애 받던 권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관리들을 죽이고 公子 無虧를 세웠다. 효공은 송나라로 달아났다. 12월 을해일, 제나라가 제환공의 죽음을 제후들에게 알렸다. 신사일 밤, 제환공을 염하였다. (冬十月乙亥, 齊桓公卒. 易牙入, 與寺人貂因內寵以殺群吏, 而立公子無虧. 孝公奔宋. 十二月乙亥赴, 辛巳夜殯.)

《사기·제태공세가》 : 환공이 병이 났을 때 다섯 공자는 각자 당파를 이루어 계위를 다투다가 환공이 숨을 거두자 마침내는 서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문에 궁중이 비어 감히 나서서 시신을 입관시킬 사람이 없었다. 환공의 시신이 침상에서 67일이나 있게 되자 시체의 구더기가 문 밖에까지 기어 나왔다. 12월 을해일에 무제가 즉위하고 나서야 입관과 부고를 하였고, 신사일 밤에 대렴을 하고 빈소에 안치하였다. (桓公病, 五公子各樹黨爭立. 及桓公卒, 遂相攻, 以故宮中空, 莫敢棺. 桓公尸在牀上六十七日, 尸蟲出于戶. 十二月乙亥, 無詭立, 乃棺赴. 辛巳夜, 斂殯.)

제환공의 죽음에 대한 《좌전》의 기술은 평면적이고 단조롭다. 10월 제환공이 죽고 12월 장례를 치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날짜와 사건만을 최소한의 표현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독자는 여간해서는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사기》는 사건의 대체적 전개에 있어서는 《좌전》과 동일하지만 장례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을 설명하고 《좌전》의 날짜에 근거하여 ‘67일’이라는 구체적 시일을 밝힌 후 “시체의 구더기가 문 밖에까지 기어 나왔다”는 묘사를 삽입하여 패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제환공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¹⁹⁾

포숙아가 제환공에게 관중을 천거하는 대목을 보자.

《좌전·장공9년》 : “관이오의 정치가 고혜보다 뛰어나니 그를 재상에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管夷吾治於高侯, 使相可也.)”

www.kci.go.kr

19) 시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표현은 《韓非子·十過》와 《呂氏春秋·知接》에도 보인다. (韓兆琦, 《史記箋證》, 2239쪽.) 사마천은 이들 기록을 참고했을 수도 있다.

《사기·제태공세가》：“임금께서 제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야 고혜와 저로 충분하겠지만 임금께서 패왕이 되려고 하신다면 관이오 없이는 안 됩니다.(君將治齊，卽高侯與叔牙足也。君且欲霸王，非管夷吾不可.)”

‘포숙이 관중을 천거했다’는 표면적 사건만 본다면 《좌전》과 《사기》의 기술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좌전》에서는 포숙이 관중을 천거했다는 의미만 표현되지만 《사기》에서는 벗을 위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관중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알아보았던 포숙으로 기술되면서 《좌전》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이 부각된다. 사마천은 여기서 《국어》를 참조한 것 같다.²⁰⁾ 《좌전》은 관중의 현명함과 그러한 간언을 받아들여 패자가 된 제환공에 초점이 맞춰진 서사라면, 사마천은 포숙의 謙讓과 知己가 부각되는 서사를 의도한 것이다.

《사기》 중 이상의 단락들은 다른 자료를 참조하긴 하였으나, 대체적인 전개상 《좌전》과 다르거나 대치되지 않으므로 《좌전》의 내용을 신뢰하고 수용하였다 볼 수 있다. 핵심적 사실은 《좌전》에서 채택하였지만 문장은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사기》는 《좌전》의 “사실을 본받았으나 그 문장을 본받은 것은 아니(師其事而非師其文)”라고 할 수 있다.²¹⁾

(2) 《좌전》 이외의 자료 채택

사마천이 《좌전》 이외의 자료를 채택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0) 《국어·제어》：“만일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면 이는 제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하고자 하면 오직 관이오가 있을 뿐입니다. 신은 5가지 점에서 관이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若必治國家者，則非臣之所能也。若必治國家者，則其管夷吾乎。……)”

21) 蔣中和, 《眉三子半農齋集》卷二<讀八大家>: 《史記》는 《左傳》, 《國語》, 《戰國策》에서, 《漢書》는 《史記》에서 나왔으나 사실을 본받은 것이지 그 문장을 본받은 것은 아니다.(《史記》之於《左》、《國》、《國策》, 《漢書》之於《史記》, 師其事而非師其文.) 《歷代名家評史記》, 287쪽 재인용.

현존하는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사마천은 춘추 시대의 서술에서 《좌전》 다음으로 《국어》를 가장 많이 참조했으며 그 외에 《공양전》, 《곡량전》, 《논어》, 《한비자》, 《여씨춘추》 등 수십 종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실전된 문헌이거나, 잡설과 구전자료를 채택한 것일 수도 있고 사마천의 가공일 수도 있다. 검증된 자료인 《좌전》이 아닌 다른 자료의 채택은 사실성에 오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감하게 《좌전》과 내용을 달리한 부분들은 사마천이 사실성의 여부보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의도를 위해 완전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에 더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秦나라는 기근이 들었던 쑤나라를 도와주었으나 막상 秦나라에 기근이 들자 쑤나라는 공격을 강행하였다. 애초 전세는 쑤나라에 유리했었으나 秦목공이 쑤나라 군대에게 잡히려던 찰나 상황이 역전되었고 결국 진혜공이 진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전쟁 중 진혜공 전차의 말이 진흙에 빠지자 慶鄭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경정은,

《좌전·희공15년》: “간언을 듣지 않고 점괘를 어겼으니 스스로 화를 초래한 것인데 어찌 빠져나오려고 하십니까” 결국 그를 버렸다. 양유미가 가운데에 타서 한간의 전차를 몰고 궤석이 오른 쪽에 동승하였는데 진목공의 전차를 맞아 싸우면서 곧 그를 사로잡으려 할 때였다. 경정이 진혜공을 구하게 하는 바람에 지체되어 진목공을 놓치고 말았다. 진나라는 진혜공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復諫，違卜，固敗是求，又何逃焉？”遂去之。梁由靡御韓簡，馘射爲右，輅秦伯，將止之。鄭以救公諷之，遂失秦伯。秦獲晉侯以歸。）

이 전쟁은 진혜공이 곡식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진나라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정은 진혜공에게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며 간언하였다. 점괘 또한 불길한 것으로 나왔으나 진혜공은 전쟁을 강행한 것이다. 전시 전의 상황과 전쟁의 과정에서 《사기·진세가》는 《좌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거의 잠을 뺐었던 진목공을 놓치고 진혜공이 포로로 잡히면서 한순간에 승패가 뒤바뀌는 대목에서 “진목공을 놓치고 말았

다. 진나라는 진혜공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사마천은 여기에 《좌전》에 없는 진목공의 일화를 삽입하였다.

《사기·진본기》 : 쑤나라 군사들이 목공을 공격하여 목공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岐山 아래에서 목공의 양마를 훔쳐 먹었던 300명의 시골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군에게 달려들어 진군의 포위망이 풀었다. 목공은 위험에서 벗어나 도리어 진혜공을 사로잡게 되었다. 당초 목공이…… (晉擊繆公, 繆公傷。於是岐下食善馬者三百人馳冒晉軍, 晉軍解圍, 遂脫繆公而反生得晉君。初繆公……)

진목공이 진혜공을 포로로 잡았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진목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300인의 시골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삽입하였다. “당초……” 다음에는 예전에 이 시골 사람들이 목공의 말을 잡아먹었을 때 목공은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술까지 하사해 주고 사면해 주었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진목공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 은덕에 보답한 것이다. 이 고사는 《呂氏春秋·愛士》에 보이는데 사마천은 이를 채택하여 삽입함으로써 ‘報恩’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투영한 것이다.²²⁾

사마천은 이처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일화의 활용을 선호하였다. 일화는 인물의 성격을 집약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해 주면서도 편년체처럼 반드시 시간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 규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 때문에 편년체인 《좌전》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일화를 배치하기가 어렵지만, 《사기》에서는 시간성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인물에 전형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기·오세가》에서 季札이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음악을 듣고 정치와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대목은 《좌전》의 전개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오세가>의 마지막에는 구체적 시간이 불명확한 ‘季札掛劍’의 일화가 있다.²³⁾ 이 일화는 《좌전》에 없으며 다른 문헌

22) 《史記箋證》, 327-328쪽.

23) 계절이 처음 사신으로 떠났을 때 徐君을 알현하였다. 서군은 계절의 검을 갖고 싶어했으나 차마 말하지 못하였고, 계절은 그 뜻을 알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미처

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사람들이 계찰에 대한 존경에서 전해지던 것이었을 텐데 사건을 정확한 시간에 배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기》는 이 일화를 끌어들이 계찰의 진면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사기·안자열전》은 안자의 정치적 업적이나 중요 사건은 전혀 없이 단 두 가지 일화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일화는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좌전》에는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일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독자에게 계찰과 안자의 성격과 인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사마천이 시간적으로 불명확하고 출처도 검증되지 않은 소문, 잡설 등의 일화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紀傳體였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마천은 간혹 사실성의 여부를 그다지 정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晔이 제경공에게 간언하는 대목의 기술을 보자.

《좌전·소공26년》 : 제나라에 혜성이 나타나자 제경공이 사람을 보내 제앙의 소멸을 비는 푸닥거리를 하도록 했다. 이에 안자가 간했다. …… 하루는 제경공이 안자와 함께 路寢에 앉아 있다가 탄식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齊有彗星, 齊侯使禳之. 晏子曰…… 齊侯與晏子坐于路寢. 公歎曰, “美哉室!”)

《사기·제세가》 : (경공) 32년, 혜성이 나타났다. 경공이 栢寢에 앉아 탄식하였다. “얼마나 훌륭하고 당당한 모습인가! 누가 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에 여러 신하들이 흐느껴 우는데 안영은 웃었다. 경공이 화를 내자 안영이 말했다. “저는 신하들의 너무나도 심한 아침을 비웃은 것입니다.” 경공이 말했다. “혜성이 동북방에 출현하였으니 바로 제나라의 분야에 해당하여 과인은 이를 우려하는 것이오.” 안영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누대를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고서 세금을 못 걷을까봐, 형벌이 무섭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니 이제 장차 혜성보다 훨씬 불길한 彗星이 출현할 것인데 저런 혜성 따위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 이 시절 경공은 궁전의 수축을 즐겼고, 사냥개와 말을 모아 길렀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조세와 형벌을 무겁게 하였기 때문에 안영이 이런 말들로 충간한 것이었다. (彗星見. 景公坐栢寢. 嘆曰: “堂堂! 誰有此乎?” 羣臣皆泣, 晏子笑, 公怒. 晏子曰, “臣笑

주지 못했다. 후에 계찰이 돌아왔을 때 서군은 이미 죽어 있었으나 계찰은 처음에 이미 그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으므로 그가 죽었다고 해도 뜻을 바꿀 수 없다며 나무에 칼을 걸어놓고 떠났다.

羣臣諛甚。”景公曰：“彗星出東北，當齊分野，寡人以爲憂。”晏子曰：“君高臺深池，賦歛如弗得，刑罰恐弗勝，彗星將出，何懼乎？”……是時景公好治宮室，聚狗馬，奢侈，厚賦重刑，故晏子以此諫之。）

《좌전》에서 혜성의 출현과 제 경공의 탄식은 다른 날에 발생한 두 가지 일이다. 《사기·제세가》의 이 대목은 서사 전개가 부자연스럽다. 혜성이 나타났는데 경공은 강성한 나라의 모습에 감탄한다. 그리고 경공은 혜성에 대한 근심이라고 한다. 전개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다른 문헌에 흠여져있는 3개의 일화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혜성의 출현, 栢寢에서의 탄식, 흐느끼며 아침하는 신하들을 비웃은 것은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세 가지 일화인데 사마천이 이를 일시의 사건으로 재편한 것이다.²⁴⁾ 사마천은 안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경공에게 어떻게 간언을 했는지의 역사적 사실보다 경공에게 직언과 간언을 서슴치 않는 안자의 형상을 전달하는데 치중한 것이다.

진영공이 계속되는 趙盾의 간언에 화가 나서 그에게 자객을 보내는 장면 또한 《좌전》과 《공양전》의 내용을 합친 것이다.

《사기·진세가》 : 영공은 그를 두려워하여 鉏臯를 시켜 趙盾을 죽이도록 하였다. 趙盾의 내실 문은 열려 있었고 처소에 절제가 있었다. 그래서 鉏臯는 물러나서 탄식하기를 “충신을 죽이는 것과 주군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죄는 같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무에 부딪쳐서 죽었다.(靈公患之，使鉏臯刺趙盾。盾閤門開，居處節，鉏臯退，歎曰：“殺忠臣，棄君命，罪一也。”遂觸樹而死.)

이 문장 또한 약간 어색하다. 趙盾의 내실 문이 열려 있고 처소에 절제가 있는 것을 본 鉏臯가 탄식하는 대목에 대해 梁玉繩은 “문이 열려 있고 처소가 검소하다는 것이 왜 충신인가? 趙盾이 새벽에 침실 문을 열고 옷을 차려입고 조정에 나갈 채비를 마치고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그의 공경에

24) 梁玉繩, 《史記志疑》 863쪽 : 禳彗星, 歎路寢, 見《左傳》及《晏子》, 泣牛山, 見《晏子》及《列子·力命篇》, 是三事也, 史公并爲一事, 而變易其辭耳.

감탄한 것은 《좌전》의 내용이다.²⁵⁾ 방에 아무도 없이 어젯밤에 남긴 고기를 먹고 있어 검소함을 칭찬한 것은 《공양전》이다.²⁶⁾ 사마천은 두 傳의 내용을 합쳐 의미가 불분명하게 되었다.”²⁷⁾라고 지적하였다. 사서로서의 사실성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둘 중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취했어야 하지만 사마천은 趙盾의 이상적인 형상을 강조하고자 ‘공경’과 ‘절제’의 두 가지 모습을 합친 것이다.

《좌전》 이외 다른 문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의 근거가 구전, 소문 등의 비문헌 자료인지, 혹은 문헌이 산실된 것인지, 아니면 사마천이 상상력을 발휘한 창작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정리한 것이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니(余所謂述故事, 整齊其世傳, 非所謂作也.)”²⁸⁾라는 사마천의 말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당시 전해지던 전설과 소문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그것이 사마천의 가공에서 비롯된 것이든, 혹은 당시에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든 이는 모두 사마천이 기획된 맥락에 맞게

25) 《左傳·宣公2年》: 새벽에 趙盾의 집으로 가서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입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본 서예는 물러나며 탄식했다. “군주에게 공경해야 함을 집에서도 잊지 아니하니 역시 백성을 위한 재상답다. 백성을 위하는 재상을 죽이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행위다. 그렇다고 임금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 또한 미덥지 못한 행위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범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결국 해나무에 머리를 찢어 죽었다. (晨往, 寢門闢矣, 盛服將朝, 尙早, 坐而假寐. 寤退, 歎而言曰, “不忘恭敬, 民之主也. 賊民之主, 不忠; 棄君之命, 不信. 有一於此, 不如死也.” 觸槐而死.)

26) 《公羊傳·宣公6年》: 용사가 조돈의 집 대문을 들어가는데 대문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 규방으로 들어갔으나 閨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마루에 올라가봤으나 사람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문틈으로 엿보니 조돈이 어제 밤에 먹던 생선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용사가 말했다. “아, 그대는 실로 인자로구나. 내가 그대의 대문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었고, 규방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었고 마루에 올라와도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대가 간소한 것이다. 그대는 진나라의 대신인데도 어제 밤에 남긴 생선을 먹으니 이는 그대의 검소함을 보여준다. 군주가 내게 그대를 죽이라 했지만 나는 차마 그대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나 또한 임금을 다시 볼 수 없다.” 결국 목을 베고 죽었다. (勇士入其大門, 則無人門焉者, 入其閨, 則無人閨焉者. 上其堂, 則無人焉. 俯而闚其戶, 方食魚膾, 勇士曰, “嘻, 子誠仁人也, 吾入子之大門, 則無人焉, 入子之閨, 則無人焉, 上子之堂, 則無人焉, 是子之易也. 子爲晉國重卿, 而食魚膾, 是子之儉也, 君將使我殺子, 吾不忍殺子也, 雖然, 吾亦不可復見吾君矣.” 遂刎頸而死.)

27) 梁玉繩, 《史記志疑》 991쪽: 門開、處節, 何以爲忠? 考覽見盾晨闢寢門, 盛服將朝, 坐而假寐, 故歎其恭敬, 此左傳也. 又見盾閨門無人, 且食魚膾, 故稱其易而儉, 此公羊傳也. 史公牽合兩傳, 割裂不明耳.

28) <太史公自序>

자료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사기》가 온전히 《좌전》을 그대로 참조하여 편년체에서 기전체로 체제만 변환시켰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첨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류가 많아지게 되었다. 顧炎武는 《사기》 세가가 대부분 《좌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좌전》과 다른 내용은 《좌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²⁹⁾ 사서로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좌전》이 더 신뢰할만하다는 것이다. 사마천 또한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은 《좌전》 외의 일화를 삽입하거나 심지어는 《좌전》과 대치되는 기록을 첨가하였다. 역대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좌전》을 근거로 반박하며 오류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류라기보다는 사마천이 역사적 사실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합리성과 완정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3. ‘成一家之言’을 위한 司馬遷의 《左傳》 재편

사마천은 자신이 《사기》를 편찬한 목적이 ‘나만의 견해를 이루고자 한 것(成一家之言)’이라고 했다.³¹⁾ 사마천은 《좌전》과 어떻게 다른 춘추 시대를 그려내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9) 顧炎武, 《日知錄》卷二六: 凡世家多本之《左氏傳》, 其與《傳》不同者, 皆當以《左氏》爲正. 《歷代名家評史記》, 180쪽.

30) 이에 대해 王靖宇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 사건 자체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개별 사건의 의미는 史家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며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또한 史家가 설정하는 것이다. 史家가 역사를 편찬할 때 고려하는 것은 사실의 여부보다 서사의 합리성과 완정성을 우선하여 자료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中國早期敘事文研究》, 2쪽.

31) <報任安書>: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두루 살펴 나만의 견해를 이루고자 하였다.(欲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1) 도덕적 인과관계 배제

《좌전》은 철저한 도덕적 논리로 진행되는 역사이다. 左氏는 춘추시대 패자국과 그 주변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흥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전달하고자 《좌전》을 집필하였는데 그 관건은 바로 도덕성의 여부이며 그 핵심은 ‘禮’이다.³²⁾ 《좌전》에서 禮는 天道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³³⁾

禮에 대한 절대적인 추종은 《좌전》의 도처에 보인다. “예는 나라를 다스리고 사직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스리며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禮, 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³⁴⁾ “예는 하늘의 규범이고 땅의 준칙이며 인간행동의 근거이다.(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³⁵⁾ “예는 인간의 근간이다. 예가 없으면 자립할 수 없다.(禮, 人之幹也. 無禮, 無以立.)”³⁶⁾ “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遠禮不如死)”³⁷⁾ 이처럼 직접적으로 禮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설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禮를 지키는 자는 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非禮는 죽음과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인과적 연결이다. 때문에 《좌전》에는 유독 ‘미리 알려주는 복선적 서사[豫敘]’가 많이 활용된다.

· 장공11년 : “송나라는 흥기할 것이다. …… 말은 경계와 두려움이 있고, 이름은 예의에 합당하니 그 나라는 거의 틀림없이 흥기할 것이다.(宋其興乎! …… 言懼而名禮, 其庶乎!)”

· 회공22년 : “초왕은 대략 그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향응을 받으면서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끝마쳤다.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니 그가 장차 어찌 명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가.(楚王其不沒乎! 爲禮卒於無別, 無別不可謂禮, 將何以沒?)”

32) 沈玉成, 劉寧 著, 《春秋左傳學史稿》(江蘇古籍出版社, 1992), 84쪽 : “貫穿於整部《左傳》中的思想是重禮和重民.”

33) 趙順順, 《左傳禮學思想研究》(山東大學 석사논문, 2008), 14쪽-16쪽.

34) 《좌전·은공11년》

35) 《좌전·소공25년》

36) 《좌전·소공7년》

37) 《좌전·문공15년》

· 회공33년 : “진나라 군사의 거동이 경망되고 무례하니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秦師輕而無禮, 必敗.)”

· 문공15년 : “제후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신은 무례하면서 오히려 예를 지키는 나라에 대해 ‘너는 어찌하여 예를 행하는가’라고 추궁하고 있다. 예로써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 천도인데 자신은 하늘을 배반하면서 예를 지키는 나라를 추궁하니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齊侯其不免乎? 己則無禮, 而討於有禮者, 曰, ‘女何故行禮?’ 禮以順天, 天之道也, 己則反天, 而又以討人, 難以免矣.)”

豫敍는 앞으로의 전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복선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禮를 갖춘 언행이 福을, 禮가 아닌 언행이 禍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그 인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豫敍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서술되면서 역사는 완정하게 ‘禮에 의한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실제 이런 대사는 없었을 것이다. 《좌전》의 편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은 禮임을 강조하기 위해 결과와 예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성했고, 이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豫敍를 삽입했을 것이다.

특히 전쟁을 기술한 대목에서 그 인과관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쟁 전의 묘사가 호의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전쟁의 성패와 거의 일치한다. 《좌전·성공15년》 진나라와 초나라의 鄢陵之戰이 시작되는 대목을 보자.

초나라가 군사를 북쪽으로 돌려 정나라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자반이 말했다. “새로 쑤나라와 결맹하고 또다시 이를 저버리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자반이 말했다. “적정이 우리에게 이로우면 진공할 뿐이요, 무슨 맹약같은 것이 필요하단 말이요?” 이때 신숙시는 은퇴하여 신읍에 있었는데 자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자반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신의로써 예를 지키고 예로써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신의와 예를 버리고도 화를 면하고자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楚將北師, 子囊曰, “新與晉盟而背之, 無乃不可乎?” 子反曰, “敵利則進, 何盟之有?” 申叔時老矣, 在申, 聞之, 曰, “子反必不免, 信以守禮, 禮以庇身, 信、禮之亡, 欲免, 得乎?”)

여기서 이미 초나라가 패할 것이라는 전쟁의 결과는 드러난다. 《좌전》의

전쟁 기술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춘추 시기의 가장 중요한 세 전투인 城濮, 鄆, 鄢陵의 전투에서 군주의 예에 대한 서술은 전쟁의 결과와 완전히 부합한다.³⁸⁾ 이러한 도덕적 인과론은 전쟁 뿐만 아니라 《좌전》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연결고리이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이런 필연성이 모두 사라진다. 《좌전》은 철저하게 예와 도덕의 유무가 나라와 인물의 승패, 흥망과 직결되어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사기》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부각시키거나 단정짓지 않는다. 禮라는 하나의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는 《좌전》과 달리 핵심적으로 반복되면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이념이나 원칙이 《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정나라 공자들이 子産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를 저지하는 대목을 사마천은 이렇게 바꾸었다.

《좌전·양공30년》：“예는 나라의 기둥이오, 예 있는 사람을 죽이면 이보다 더 큰 화는 없을 것이오.”(禮, 國之幹也. 殺有禮, 禍莫大焉.)

《사기·鄭세가》：“자산은 어진 사람이고 정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때문이니 죽이지 말라.”(子産仁人, 鄭所以存者子産也, 勿殺!)

《좌전》은 禮는 나라의 근간이므로 禮가 있는 자산을 죽인다면 화가 될 것이라는 인과관계식 논술이지만, 《사기》에서는 자산이 어질고 정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뿐이다. 《좌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표현을 달리했다는 점은 사마천이 상황을 禮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좌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高祖本紀>의 ‘태사공왈’ 부분은 과거 왕조의 시비공과에 대한 총평인데 사마천은 여기서 주나라의 병폐가 바로 과도한 예의 추구였다고 지적한다.

38) 이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288-289쪽의 각주 141 참조.

주왕조는 예의를 숭상하였다. 예의의 병폐는 백성들을 야박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주 왕조에서 진왕조에 이르는 기간의 병폐는 지나치게 예의를 강구한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周人承之以文, 文之敝, 小人以僿, …… 周秦之間, 可謂文敝矣.)³⁹⁾

‘承之以文’에서 ‘文’은 ‘禮儀’ 등의 전장제도⁴⁰⁾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주나라가 숭상한 禮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마천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예라는 질서가 붕괴된 춘추 시기, 《좌전》은 周禮를 지키는 것만이 이상적인 천하를 위한 절대적인 이념임을 강조하는 반면, 사마천은 주나라가 지나치게 예이라는 이념과 형식에 집착함으로써 사람들을 각박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禮를 숭상하고 준수하는 여부에 의해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좌전》식 인과관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좌전》의 역사 사실은 거의 그대로 끌어오면서 禮를 중심으로 한 인과관계의 논리를 대부분 배제한 《사기》의 서사는 역사가 결코 도덕적 인과관계에 의해 흘러가거나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하다. 사실 사마천은 도덕적 인과관계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품고 있었다.

“천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 백이, 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렇 수가 있는가? ……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의혹스러움을 느낀다. 만약에 이런 것이 천도라고 한다면 그 천도는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或曰: “天道無親, 常與善人.” 若伯夷, 叔齊, 可謂善人者非耶? …… 天之報施善人, 其何如哉? …… 余甚惑焉, 儻所謂天道, 是邪非邪?)”⁴¹⁾

《좌전》은 禮를 행하는 자가 善人이며 그에게는 상응하는 보답이 있음을 역사 사실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교함에 반해, 《사기》는 善人이었음에도 불

39) <고조본기>太史公曰

40) 《史記箋證》, 747쪽 참조. 鄭玄은 이 문장에서의 ‘文’을 귀하고 천함의 차이(尊卑之差)라고 풀이하였다. 예의 속성이 상하의 분별을 위한 제도적 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韓兆琦와 정현의 해석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41) 《사기·백이열전》

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던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天道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충절과 지조를 지켰던 이들이 오히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사마천은 도덕적 행위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좌전》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을 대부분 배제하고 수정함으로써 《좌전》과는 다르게 춘추 시대를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2) ‘隱忍就功名’의 강조

‘一家之言’에 대해 章學誠은 “남들이 조심하는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원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체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후에 은미한 사이에 마음에서 홀로 판단을 내리는 것(忽人之所謹, 繩墨之所不可得而拘, 類例之所不可得而泥, 而後微茫秒忽之際有以獨斷於一心.)”이라고 풀이하였다.⁴²⁾ 사마천은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禮 중심의 도덕적 인과관계로만 설명한 《좌전》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였다. 그렇다면 禮가 아닌 무엇을 중요한 가치라고 ‘獨斷’하였을까.

《사기》 열전 중 춘추 시대의 인물은 관자, 안자, 오자서 세 명이다. 관자와 안자는 제나라의 부흥을 이끈 재상이었기에 춘추 시기의 대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자서는 《좌전》에서 이들만큼 비중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기》에서 오자서는 가장 인상적인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사마천은 오자서에 대해 “사소한 의리를 버리고 큰 수치를 갚기 위해(棄小義, 雪大恥)”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어 공명을 이룬(隱忍就功名)” ‘강인한 대장부(烈丈夫)’라 칭송했다.⁴³⁾ 《사기》의 춘추 시기 내용 중 《좌전》의 기술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대부분 이러한 ‘고초를 참고 견디 공명을 이룬’ 인물에 집중되

42) 章學誠, 《文史通義校注·答客問上》

43) 《사기·오자서열전》

어 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함으로써 결국 공명을 이뤄낸 인물을 강조하는 것이 사마천의 서사 기획이었다.

오자서는 군명과 부명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달아나서 원수를 갚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君父의 명에 복종했다는 義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형과 다른 선택을 하였다. 오자서는 형이 지키려던 것은 ‘小義’에 불과한 것이며 살아남아 설욕하는 것이 진정한 ‘大義’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자서가 어부를 만나 위험을 모면하고 걸식까지 하는 장면은 《좌전》에 없다. 사마천은 이러한 일화를 삽입함으로써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의 험난함과 오자서의 인내를 부각시켰다. 가장 극적인 윤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오자서의 복수 장면이다. 오자서가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인 郢에 입성한 상황에 대한 《좌전》과 《사기》 기술을 보자.

《좌전·정공4년》 : 경진일, 오나라 군대가 영에 입성하여 각자 신분의 고하에 따라 초나라의 궁실을 차지했다.(庚辰, 吳入郢, 以班處宮.)

《사기·오자서열전》 : 경진일, 오왕은 郢에 입성하였다. …… (오자서는)초 평왕의 묘를 파헤쳐 그의 시신을 꺼내어 300번이나 채찍질한 후에야 그만두었다.(庚辰, 吳王入郢. …… 乃掘楚平王墓, 出其尸, 鞭之三百, 然後已.)

《좌전》에는 오자서 개인의 설욕에 대한 내용이 없다.⁴⁴⁾ 물론 편년체이므로 기술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좌전》은 어떤 경우라도 군주에 대한 복수를 허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禮’의 세계이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사마천은 춘추 시대를 《좌전》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제

44) 《좌전》의 기록은 사실 오자서의 복수 못지않게 처참하다. “각자 신분의 고하에 따라 초나라의 궁실을 차지했다.(以班處宮)”는 표현은 《곡량전》에 의하면 “임금은 임금의 침소에 거하면서 임금의 아내를 아내삼고, 대부는 대부의 침소에 거하면서 대부의 아내를 아내 삼는다.(君居其君之寢而妻其君之妻, 大夫居其大夫之寢而妻其大夫之妻.)”의 의미이다. 오자서가 끌어들이던 재앙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마천은 오자서에 대한 우호적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韓兆琦, 《史記通論》, 112-113쪽.

45) 《좌전·정공4년》 : “군주가 신하를 죽인다고 하여 누가 감히 군주에게 원한을 품을 수

도적인 이념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쫓아 “작은 의를 버리고 큰 수치를 씻어낸(棄小義, 雪大恥)” 면모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곡량전》의 “평왕의 무덤을 채찍질하였다(撻平王之墓)”라는 기록을 참조하면서 더 과장하여 “묘를 파헤쳐 그 시신을 300번이나 채찍질한 후에 그만두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오자서의 집념과 설욕을 극대화하였다.

누명을 쓰고 달아나 19년 동안 망명 생활의 역경을 견뎌내고 귀국하여 결국 패자가 되었던 진문공도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며 공명을 이룬’ 자이다. 살해 위험에 처한 중이가 진나라를 떠나 망명하는 대목을 보자.

《좌전·僖公23년》 : 진공자 중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진현공의 군대가 포성에서 그를 공격했다. 포성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 싸우려하자 중이는 불가하다며 말했다. “군주인 아버지의 명으로 봉지를 보유하고 그 녹봉을 누리는 덕분에 백성들의 보살핌을 얻을 수 있었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항한다면 이보다 큰 죄가 없게 되오. 차라리 달아나는 게 낫소.” 결국 狄으로 달아났다.(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 晉人伐諸蒲城. 蒲城人欲戰, 重耳不可, 曰, “保君父之命而享其生祿, 於是乎得人. 有人而校, 罪莫大焉. 吾其奔也.” 遂奔狄.)

《사기·진세가》 : 현공이 환관 이제를 보내어 급히 중이를 주살하라고 명하였다. 중이가 담을 넘어 도주하자 환관은 그를 추격하여 그의 옷소매를 베어갔다. 중이는 적나라로 도주하였다.(獻公使宦者履鞮趣殺重耳. 重耳踰垣, 宦者逐斬其衣袂. 重耳遂奔狄.)

중이가 적나라로 도주하게 되는 대목이다. 《좌전》에서 중이는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망명이라는 선택을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군신과 부자 사이의 禮를 걱정한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 장면에서 禮 때문에 전전공공하는 모습이 아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자객에게 옷소매를 베이면서도 담을 넘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장면으로 묘사했다. 형 신생처럼 부자지간의 도리에 연연하여 헛된 죽음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있겠는가. 군명은 곧 천의를 대신하는 것이다. 만일 천의에 의해 죽은 것이라면 누구를 원수로 삼을 수 있겠는가.(君討臣, 誰敢讎之? 君命, 天也. 若死天命, 將誰讎.)”

중이의 19년 망명생활에 대한 기술에서도 《좌전》은 중이가 험난한 처지에서도 禮를 잃지 않았음에 초점이 맞춰진다.⁴⁶⁾ 《좌전》에서 진문공이 覇者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덕이 있고 예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그의 이러한 언행은 패자라는 결과와 맞물린다. 그러나 사실 문공은 이상적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공자도 그를 ‘속임수를 사용하였고 바르지 않다(譎而不正)’고 했다.⁴⁷⁾ 《좌전》의 저자는 일관적인 ‘도덕사관’을 전달하기 위해 진문공이 패자가 된 것에 도덕적 원인을 결부시켰고, 진문공이 예와 덕을 갖춘 면만을 부가시키면서 부정적인 면모는 감추었다. 이는 《좌전》이 도덕사관이라는 전체적 기조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면만을 채택했기 때문이다.⁴⁸⁾ 《좌전》에서 진문공이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지켰기 때문이지만 《사기》에서는 그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이다.

《사기》 중 重耳가 秦 穆公을 만난 대목은 禮가 궁극적 목적을 위한 의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이가 진나라에 도착하자 穆公은 환대하며 친척 여자 5명을 중이의 처로 삼게 하였다. 그 중에는 진회공의 부인이었던 懷嬴도 끼어있었다. 중이가 원치 않자 司空季子が 간언한다.

《사기·진세가》：“그의 나라도 정벌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그의 전처이겠사옵니까? 받아들여 진나라와 친분을 맺고 환국을 하셔야 하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소소한 예절에 구속되어 큰 치욕을 잊으십니까?”(其國且伐，況其故妻乎！且受以結秦親而求入，子乃拘小禮，忘大醜乎！)

진목공이 자신의 딸 회영을 중이에게 준 것에 대해 《좌전·회공23년》은 “진목공은 딸 다섯을 중이에게 주었는데 회영도 끼어 있었다(秦伯納女五人，懷

46) 진문공의 19년 망명생활이 《좌전》에서는 시종일관 예를 지키는 문공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기》에서는 예가 아닌 패업에 대한 야심을 종종 드러낸다. 《사기》는 진문공의 고난과 역경을 기술한 반면, 《좌전》에서 진문공의 망명 생활은 禮를 지켜가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예에 대한 준수가 패자가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姚德彬, <兩個晉文公—從《左傳》與《史記》的人物差異說開> 참조.

47) 《論語·憲問》：공자가 말씀하셨다. “진문공은 속임수를 사용하였고 바르지 않으며, 제 환공은 바르고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子曰，晉文公譎而不正，齊桓公正而不譎.)”

48) 《道德史觀與左傳文學研究》，150-151쪽.

羸與焉.)”⁴⁹⁾ 고만 되어있다. 회영은 중이의 동생인 夷吾의 아들 子囿의 처였다. 즉 조카의 처였기에 중이로써는 달갑지 않았다. 사마천은 《국어》의 내용을 취하여 이 대화를 삽입하고⁵⁰⁾ 마지막에 “어찌 소소한 예절에 구속되어 큰 치욕을 잊겠는가?(拘小禮, 忘大醜乎)”라며 사공계자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였다. 이 대화를 통해 중이는 진나라로의 환국과 즉위, 패자가 되어 과거의 수치를 씻기 위해 사소한 예절(小禮)을 과감히 저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관중은 원래 모셨던 공자 紂가 죽임을 당하고 召忽이 공자 규를 따라 자결하자 구금되기를 청하였고 그렇게 살아남아 다시 제환공을 섬긴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절을 다하지 못한 변절자이고 구차하게 살아남기를 구한 자이다. 《좌전》에는 관중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사마천은 관중의 입을 빌려 “사소한 절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하에 공명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게 함으로써 관중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큰 뜻을 위해 참을 줄 알았기에 결국 환공을 오패의 우두머리로 만들고 자신의 명성을 이룰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제세가>와 <노세가>에는 曹沫이라는 장수가 제환공에게 노나라 땅을 반환하도록 위협한 대목이 있다. 환공은 협박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으나 위기를 모면한 후 환공은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자 관중은 신뢰가 중요하다는 간언을 하였고 환공은 결국 땅을 돌려주었다. 이 대목은 《좌전》에 없고 《공양전·장공 13년》에 보이지만 관중의 간언도 없고 조말의 용맹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이 일화는 <제세가>, <노세가> 외에 <관중열전>, <자객열전>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어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말은 바로 《좌전》의 명편 중 하나인 장공10년 <曹劌論戰>에 등장하는 曹劌이다. 조귀는 제나라의 강한 군대를 맞아 적

49) 회공23년.

50) 《국어》에는 회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중이가 처음에 司空季子에게, 그리고 나서 狐偃, 子餘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였는데 사마천은 이 세 사람의 말을 섞어 사공계자 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국의 전력과 용병술을 헤아려 적시에 북을 한번 치는 것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조귀논전>이 《사기》에는 없다. 조말(조귀)에 대해 《좌전》을 채택하지 않고 《공양전》을 채택한 것이다. 문제는 제환공을 위협하여 노나라 땅을 돌려받은 조말의 일화가 《좌전》과는 상충되며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⁵¹⁾ 사실성이 담보된 《좌전》을 배제하고 사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한 것은 사마천이 조말의 “작은 절개를 버리고 대대로 전해질 공을 세운(棄忿悁之節, 定累世之功)”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⁵²⁾

19년 망명생활의 굴욕을 인내하고 패자가 된 쑤 文公, 군주와 부친의 명에 불복하고 달아나 훗날의 복수를 이뤄낸 오자서, 작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을 이루고자 했던 관중, 三戰三敗의 치욕을 씻고 노나라 땅을 되찾은 조말, 패전의 수치를 참아내고 10년간 실력을 기르면서 결국 오나라를 정복한 월왕 구천과 그의 조력자 범려, 15년 동안 조씨고아를 길러 결국 屠岸賈에게 복수하였던 程嬰 등은 《좌전》에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언급이 되었더라도 존재가 미약했던 반면, 《사기》에서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들이다. 사마천은 세상의 통념과 절대적 이념을 벗어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인고하고 마침내 공명을 이루어낸 이들의 행적이 가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사기》 중 이들의 기술은 《좌전》과 대치되거나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성을 의심받고 허구로 간주되거나 오류라고 비판받아왔다.⁵³⁾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오류는 역설적으로 史家가 자신이 전달

51) 梁玉繩은 《좌전》에 근거하면 당시 노나라가 제나라에게 패하여 땅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며 조말의 일화가 허황된 것이라 하였다.(《史記志疑》, 1311쪽. “莊公自九年敗乾時, 後至十三年盟柯, 中間有長勺之勝, 是魯祇一戰而一勝, 安得有三敗之事?”) 청대 何焯 또한 “조말의 일은 전국시기 호사자들이 지은 것으로 춘추 시대에는 이러한 기풍이 없었다.(曹沫之事, 亦戰國好事者爲之, 春秋無此風也.)”고 했다.(《史記通論》, 78쪽 재인용.)

52) 이 표현은 <魯仲連列傳>에 보인다. 노중련은 연나라 장수에게 보낸 글에서 “작은 절개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작은 치욕을 마다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規小節者不能成榮名, 惡小恥者不能立大功.)”라며 작은 절개(小節)와 작은 수치(小恥)에 구애되지 않고 공명을 이룬 사람으로 관중과 조말을 언급하였다. <제세가>, <노세가>, <자객열전>에서 조말이 제환공을 위협하는 장면에서의 용기와 비장함 등은 노중련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3) 특히 역사학자들은 조씨고아 대목을 거의 허구로 간주한다. 趙翼, 《欽定四庫全書》권오<趙氏孤之妄> : “《좌전》과 《국어》에 없는 이설을 취하여 “屠岸賈의 일은 황당무계하고

하고자 하는 의도를 효과적이고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사료를 적절히 편집하고 가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여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중국 서사의 전통이자 관습이다. 《사기》 중 진정한 의미에서 사마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漢代 이후라 할 정도로 漢代 이전 시기는 대부분 기존 자료의 취사선택으로 집필되었는데 춘추 시대는 《좌전》을 가장 많이 채택하였다. 본고는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좌전》을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사마천은 《좌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표현을 바꾸거나, 혹은 《좌전》에 없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춘추 시대를 재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인 것들까지 첨가되었지만, 사마천은 그것들의 사실성 여부보다는 자신이 역사 서술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합리성과 완성성을 더 우선하였다.

학자들은 《좌전》과 《사기》의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좌전》의 자료에 더 신빙성을 부여한다. 《사기》가 《좌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좌전》과 다른 자료를 조합한 대목이나 《좌전》 이외의 자료를 채택한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오류와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마천이 《좌전》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혹은 다른 자료를 채택

사마천의 체록은 황당하며 믿을 수 없다. 사기 중 세가의 내용은 대부분 《좌전》과 《국어》에서 취하였는데 오직 이 사건만은 두 책의 기록을 쓰지 않고 따로 異說을 취하여 서로 어긋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실로 기이함을 좋아한 잘못이다. (益可見屠岸賈之事出於無稽，而遷之採摭荒誕不足憑也。《史記》諸世家多取《左傳》、《國語》以爲文，獨此一事全不用二書而獨取異說，而不自知其牴牾，信乎好奇之過也!) (河北人民出版社, 2003, 90쪽.) 梁玉繩, 《史記志疑》권23 <趙世家> : “이 일은 실로 황당하여 믿을 수가 없다. 屠岸賈와 程嬰, 公孫杵臼와 같은 인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斯事固妄誕不可信，而所謂屠岸賈、程嬰、杵臼，恐亦無其人也。)”(中華書局, 2006) 1051쪽.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자신이 《사기》의 편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사실이나의 여부보다는 ‘一家之言’의 완성성을 우선한 것이다.

‘역사 기술을 통한 의식의 전달’은 중국 史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속성이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보다 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사건(事)’은 ‘의식(義)’을 전달하기 위해 빌려지는 수단이었다. 章學誠은 “옛 사람은 사건을 떠나서 이치를 말한 적이 없다(古人未嘗離事而言理)”⁵⁴⁾고 했고, 皮錫瑞는 “사건을 빌려 의리를 밝힌다(借事明義)”고 했다. 즉 사실보다 이념과 가치의 전달이 우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에서 사실성의 여부를 궁구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사마천이 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료들을 인용하면서까지, 혹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공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배치했는지 그 이면의 의도를 살펴 독해해야 한다.

《좌전》의 핵심은 ‘禮’이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좌전》을 편찬하였으며 일관적으로 禮의 논리를 거듭 강조하였다. 즉, 《좌전》은 역사를 위한 책이 아니라, 禮를 지킨 자와 그러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만이 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역사를 빌린 것이다.⁵⁵⁾ 사마천은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좌전》의 사실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예의 유무가 성패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도덕적 인과관계를 모두 배제한다. 그러면서 예보다 인간의 의지를 우선한다. 《좌전》은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는 원칙이 ‘예’임을 강변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사기》는 역사에 필연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외부적이고 당위적인 이념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목적을 위해 분투한 자들을 조명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자료를 취사선택하였다.

물론 《사기》는 《좌전》의 상세하고 곡진한 장면, 대사, 심리의 묘사 등 서사 기법적 측면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좌전》의 저자가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이런 묘사가 아니라 예가 정치와 인간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역사는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기》는 《좌전》에서 가장 중

54) 章學誠, 《文史通義校注·易教上》

55) 趙輝는 <左傳敘事體式與禮之關係考>(中州學刊, 2008년11월)에서 《좌전》에 대해 ‘예를 밝히기 위해 역사를 빌린 것(以事明禮)’이라고 하였다.

요한 핵심을 배제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좌전》과는 다른 춘추 시대를 재구성하였다. 左氏와 사마천이 사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은 달랐기 때문에 사마천은 《좌전》의 사실은 채용하면서도 서사 전략을 달리했던 것이다. 사마천은 《좌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존의 사실을 다시 편집하였다. 따라서 문학사적 계승과 발전의 논리에 의해 단순히 《사기》와 《좌전》의 전승 관계를 해석하기 보다는 저자가 역사 기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로부터 그 사서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 參考文獻 >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7.
- 杜預 集解, 《春秋經傳集解》,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徐元誥, 《國語集解》, 中華書局, 2002.
- 章學誠 著, 葉瑛 校注, 《文史通義校注》, 中華書局, 2000.
- 趙 翼, 《廿二史劄記校證》, 中華書局, 2001.
- 趙 翼, 《陔餘叢考》, 河北人民出版社, 2003.
- 梁玉繩, 《史記志疑》, 中華書局, 2006.
- 楊燕起 외 著, 《歷代名家評史記》,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6.
- 韓兆琦, 《史記通論》,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 韓兆琦, 《史記箋證》, 江西人民出版社, 2009.
- 張大可 등 주편, 《史記研究集成》 제11권 《史記文獻與編纂學研究》, 華文出版社, 2005.
- 王靖宇, 《中國早期敘事文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朱志純, 《從史記對左傳的取材透視司馬遷的一家之言》, 華中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 廖 穎, 《左傳與史記》, 貴州大學 석사논문, 2008.
- 鄭世林, 《論史記對左傳中人物形象的重塑》, 重慶師範大學 석사논문, 2010.
- 呂 俊, 《〈史記〉引用〈左傳〉研究》, 鄭州大學 석사논문, 2012.
- 傅希亮, 《道德史觀與左傳文學研究》, 首都師範大學 박사논문, 2004.
- 史繼東, 《左傳敘事觀念及敘事藝術研究》, 陝西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趙順順, 《左傳禮學思想研究》, 山東大學 석사논문, 2008.

정범진 외 역, 《史記》, 까치, 2010.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미토, 2006.

< 中文提要 >

司馬遷記述春秋時期, 取材最多者乃在《左傳》一書. 因此本論文考察了《史記》如何取捨、承襲、編輯《左傳》的內容. 首先, 討論了《史記》與《左傳》的關係, 分兩個方面進行探討: 《史記》接受《左傳》的部分; 《史記》採取《左傳》以外的部分. 其次, 考察了《史記》爲了“成一家之言”如何更改《左傳》的內容. 綜上所述, 結論如下: 第一, 《史記》排斥了《左傳》中“禮”. “禮”是《左傳》的核心內容, 有禮者必興, 無禮者必敗, 這樣的因果關係是《左傳》的核心思想, 而《史記》中這樣的因果關係是蕩然無存, 表示了司馬遷的歷史觀與《左傳》的編者不同. 第二, 司馬遷爲了強調“隱忍就功名”的精神, 他積極採取《左傳》以外的記錄, 甚至更改史實而創造出“發憤”的人物典型.

關鍵詞: 《左傳》, 《史記》, 史傳散文, 敘事策略, 借事明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27.	2014. 10. 20.	2014. 10. 22.	2014. 11. 3.	2014. 11. 30.